

[소식지 기획기사 이사장님 칼럼]

지원의 사각지대, 불임부부 가족에게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 “새 생명, 새 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저출산? 격세지감!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04년 합계출산율 1.16명. 이는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05년 세계인구현황조사 결과로 발표한 선진국 평균 1.57명에도 한참 밀도는 수치다.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이 발표된 후, 온 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불러올 위기감으로 부산하다. 10년 전만 해도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에 주눅들었던 다산 가족이 갑자기 환대받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저출산 위기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좀더 차분하게 점검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과거 출산억제책을 단순히 출산장려책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설득될 리 만무하다.

아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어야

그래도 이번 저출산 위기 속에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되어왔던 불임부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이제 비로소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불임부부 가족에게 시험판 아기 시술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저출산 대책이라는 맥락이 있어서 그나마 쉽게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저출산 위기 해소라는 거대 담론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식집계만 63만 5천쌍에 달하고 있는 불임부부 가족들, 한가족 한가족의 그 가슴절절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본다면, 반드시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지원의 사각지대였다. 이제라도 정부가 불임부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모색한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지난 9월 28일, 언론에 크게 홍보는 되지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의미있는 협약식이 있었다. 한국여성재단과 삼성코녕정밀유리, 보건복지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임치료의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새 생명, 새 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 사업은 향후 1년 반 동안 전문적인 불임치료를 원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 가족 200가

(2430002020)

구를 선정, 선정된 후 6개월간 100만원 한도액 내에서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에 앞서, 체계적인 불임치료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모색하는 민간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원규모는 총 2억 원. 전액 삼성코닝정밀유리의 기업 사회공헌비로 지원되며, 이미 10월 1일부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아기모사이트(www.agimo.org)를 통해 첫 번째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임치료 사회적 지원시스템 마련에 정부, 기업, 민간단체가 파트너십 맺어

이번 사업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많다. 우선, 이번 사업이 불임부부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마련하는데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그동안 외롭게 불임의 고통과 싸워온 가족들, 또 향후 잠재적 불임가족 모두에게 이미 새 희망을 선사하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가지 공통된 이슈에 대해 각 주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간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은 전체 사업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사업비 지원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실제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결과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민관 파트너십의 선도적인 모델로 기대되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삼성코닝정밀유리의 역할과 기여는 단연 돋보였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획 역시 지난 4월, 삼성코닝정밀유리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사업보다 일회성 자선에 그치기 쉬운데,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업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삼성코닝정밀유리의 기업정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다른 기업들이 하듯 직접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속에서 각각의 부문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삼성코닝정밀유리와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본다.

불임치료비의 건강보험수가 적용 확대되어야

이제 불임부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정부, 기업,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나섰다. 지금은 당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비 지원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불임부부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부정확한 불임관련 정보들을 체계화시켜 전달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또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불임치료비의 건강보험수가 적용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더 많은 개인과 기업, 민간단체,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다.